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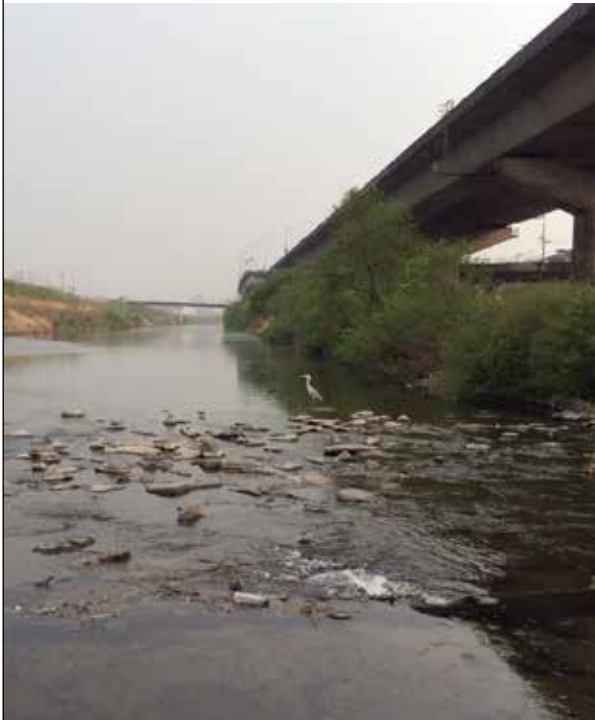
## 미명하(未名河)

● 글\_강 자오펑(Kang, Zhaofeng)·고등과학원 물리학부 연구원

중국에서 KIAS로 왔을 때가 3월 중순경이었다. 캠퍼스 산 중턱 나무들 사이로 새싹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꽃들이 피어있지는 않았지만, 얼굴에 스치는 따뜻한 바람에서 봄이 머지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새로운 여행의 시작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이다.

같은 피부색, 같은 얼굴, 가방을 메고 서울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어 외에 내가 낯선 이국의 이방인이라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사실 이곳은 북경보다 습하고, 공기가 훨씬 깨끗하며, 나무도 많다. 하지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이따금 하곤 한다. 나의 고향, 중국 남부 시골, 그곳의 봄에는 마치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처럼 비가 자주 온다. 고향 사람들은 사막에서 이글이글 타는 듯한 고통을 전혀 느낄 일이 없을 것 같다.

나는 KIAS 주변을 정말 좋아한다. 비록 이곳 또한 주택과 도로가 뺨뺨하게 늘어서 있지만, 어디까지나 서울 변화가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항상 자연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와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시의 급박한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편안함과 안락함을 준다.



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 보자면, 나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은 KIAS 북쪽(혹시 다른 방향일 수도?)에 흐르는 작은 강이다. 그 당시 표지판을 보고 있어도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은 이미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억울하니 그 강을 '미명하'라고 불러 본다. 중국 베이징대학의 유명한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미명호(未名湖)다.

미명호의 원래 뜻은, '이름없는 호수'다. 그러나 사실 그 뜻과는 달리, 미명호의 명성은 천하를 뒤흔들 만큼 대단하다. 서울의 '미명하'는 광활하고 탁 트인 웅장함은 없지만, 사람과 자

연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풍경을 보여준다. ‘미명하’의 전체적인 모습은 나를 놀라게 한다. 완곡하고 조용한 강줄기가 견고하고 요란한 고가다리와 함께 도시 가운데를 따라 길게 뻗어있다. ‘미명하’는 본래 조류 보호구역이기도 한데, 계절 탓인지 강변에서 노닐고 있는 새 몇 마리만 드물게 보일 뿐이다. 하지만 고가다리에서 있는 뻗뻗하고 우울한 사람에게 이곳의 풍경은 상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기쁨이다.



고가다리 아래 남쪽 강변은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경치가 펼쳐진다. 사람 키 높이 정도의 갈대들이 가지런히 서서 짙은 가을 정취를 풍기고 있다. 갈대는 그 주위를 오가는 사람들 틈으로 해 질 녘의 강바람을 맞으며 태연히 이리저리 몸을 흔든다. 가끔 갈대숲 사이로 보이는 새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놀라 황급히 나무숲 옆으로 도망을 간다. 갈대가 마침 가지런하고 반듯하게 내리막길을 두 갈래로 갈라놓는다. 한 갈래는 길이 아주 좁아서, 사람들이 통행하거나 자전거가 겨우 통과할 정도다. 다른 한 길은 외부의 주택지구와 근접해 있는데, 넓히려면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 위쪽으로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용적인 몇몇 농구장, 배드민턴장, 그리고 아이들 놀이터와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서 있다. 미니공원도 작은 쉼터도 하나 보이는데 공원 안에는 각종 꽃과 풀들이 자라고, 벤치도 몇 개 늘어서 있어서 마치 내 집 정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다.

걸다가 피곤해지면 바로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물 한 모금 마시면서 먼 곳에서 천천히 좁아지는 물길을 바라본다. 물길 앞쪽 고가다리와 옆으로 이어지는 건물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 먼 곳에서 신 나게 달려오는 사람들은 뜻밖에도 강의 저편, 더 먼 곳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 未明河

从中国来KIAS的时候是三月中旬。虽然那时校园里山坡上的树木还没有吐出新芽，各种花草也还未曾绽放，但从那吹过脸庞的暖风中可以清晰地嗅出，春天已然就在不远的前方。对于一趟新的旅程而言，恐怕没有比这更美妙的开始了。

相同的肤色，相同的脸庞，即便一个人背包行走在首尔的大街小巷，除了人们完全不知所云的对话外，我也并没有觉察到多少异国他乡的陌生来。实际上，这里相比于北京更湿润的空气，更清澈的天空，更随意的树木，反而让我更有重回故里的错觉。我的家乡，在中国的南部乡村，那里的春天喜欢下雨，似乎有着永远也下不完的雨，不会让那里的人们生出疲倦，如被在沙漠里炙烤一样的疲倦。

KIAS的周边我是很喜欢的。虽然也难免密集的房屋与公路，但这里毕竟远离首尔繁华的中心，故而总是可以设法最大可能地保留土木、山水的位置。不至于让人淹没在都市的洪流中。也能让我们这些做研究的人生出更滋润一些的灵感。

说起水，给我印象最深的是KIAS北面(或者别的方面?)的那条小河。由于当时看路牌的时候完全不解名字的含义，所以现在已经记不得它的名字了。那么就委屈一下它，暂且叫做未明河吧。中国著名的北京大学里有一个著名的湖，就叫做未名湖。

未明湖的原本意思，据说就是无名之湖。虽叫未明，实则名动天下。

未明河所展示的并不是大风大浪的开阔雄伟画卷，而是人与生态亲密无间的和谐影像。未明河的立体构造让我惊讶不已。它委婉安静的河段，伴随着坚固喧闹的高架桥在城市中延伸。未明河本身又是一个鸟类保护区，不知是否季节的原因，仅能见着零星的几只河在河边游弋。但对于习惯了立交桥阴森硬邦邦样子的人来说，这已经是非常的出乎意料了。

高架桥的下面，即河的南岸，完全是另一番景象。齐人高的芦苇，仍旧披着浓浓的秋意。它们在周遭来往的行人中，迎着傍晚的河风，若无其事地摇曳着身姿。偶尔能见着有从芦苇堆窜起地惊鸟，慌乱逃往旁边的树丛。芦苇规划得很齐整，恰好降路面分成两块。一块较窄，可以供人行走或者自行车通过；另一块贴着外边的生活小区，要宽上许多。上面建设了一些不华丽但实用得公共设施，如篮球场，羽毛球地，还有孩子们玩耍的地方。间或有个mini的公园，里面种上些花草，摆上几套桌凳，如自家的院子一般意。

走累了，我就顺便坐下，喝口水，眺望远处逐渐收窄的河道。它在前方与高架桥、旁边连绵的楼房融合在了一起。后来才知道，那些兴冲冲从远处驶来的骑客们，竟是从更远处的汉江边上而来。